

<이과대 여성 커리어개발 워크숍>

그 많은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여덟가지의 생활 원리를

최종판 수정자명: 김민정, 최종 판본: 2024년 12월 10일, 최종 검토: 김민정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밖에 석학(碩學)은 21명, 고(高)는 7명

1.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3.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4.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 1997년 12월 15일
 2. 1998년 1월 15일
 3. 1998년 2월 15일
 4. 1998년 3월 15일
 5. 1998년 4월 15일
 6. 1998년 5월 15일
 7. 1998년 6월 15일
 8. 1998년 7월 15일
 9. 1998년 8월 15일
 10. 1998년 9월 15일
 11. 1998년 10월 15일
 12. 1998년 11월 15일
 13. 1998년 12월 15일
 14. 1999년 1월 15일
 15. 1999년 2월 15일
 16. 1999년 3월 15일
 17. 1999년 4월 15일
 18. 1999년 5월 15일
 19. 1999년 6월 15일
 20. 1999년 7월 15일
 21. 1999년 8월 15일
 22. 1999년 9월 15일
 23. 1999년 10월 15일
 24. 1999년 11월 15일
 25. 1999년 12월 15일
 26. 2000년 1월 15일
 27. 2000년 2월 15일
 28. 2000년 3월 15일
 29. 2000년 4월 15일
 30. 2000년 5월 15일
 31. 2000년 6월 15일
 32. 2000년 7월 15일
 33. 2000년 8월 15일
 34. 2000년 9월 15일
 35. 2000년 10월 15일
 36. 2000년 11월 15일
 37. 2000년 12월 15일
 38. 2001년 1월 15일
 39. 2001년 2월 15일
 40. 2001년 3월 15일
 41. 2001년 4월 15일
 42. 2001년 5월 15일
 43. 2001년 6월 15일
 44. 2001년 7월 15일
 45. 2001년 8월 15일
 46. 2001년 9월 15일
 47. 2001년 10월 15일
 48. 2001년 11월 15일
 49. 2001년 12월 15일
 50. 2002년 1월 15일
 51. 2002년 2월 15일
 52. 2002년 3월 15일
 53. 2002년 4월 15일
 54. 2002년 5월 15일
 55. 2002년 6월 15일
 56. 2002년 7월 15일
 57. 2002년 8월 15일
 58. 2002년 9월 15일
 59. 2002년 10월 15일
 60. 2002년 11월 15일
 61. 2002년 12월 15일
 62. 2003년 1월 15일
 63. 2003년 2월 15일
 64. 2003년 3월 15일
 65. 2003년 4월 15일
 66. 2003년 5월 15일
 67. 2003년 6월 15일
 68. 2003년 7월 15일
 69. 2003년 8월 15일
 70. 2003년 9월 15일
 71. 2003년 10월 15일
 72. 2003년 11월 15일
 73. 2003년 12월 15일
 74. 2004년 1월 15일
 75. 2004년 2월 15일
 76. 2004년 3월 15일
 77. 2004년 4월 15일
 78. 2004년 5월 15일
 79. 2004년 6월 15일
 80. 2004년 7월 15일
 81. 2004년 8월 15일
 82. 2004년 9월 15일
 83. 2004년 10월 15일
 84. 2004년 11월 15일
 85. 2004년 12월 15일
 86. 2005년 1월 15일
 87. 2005년 2월 15일
 88. 2005년 3월 15일
 89. 2005년 4월 15일
 90. 2005년 5월 15일
 91. 2005년 6월 15일
 92. 2005년 7월 15일
 93. 2005년 8월 15일
 94. 2005년 9월 15일
 95. 2005년 10월 15일
 96. 2005년 11월 15일
 97. 2005년 12월 15일
 98. 2006년 1월 15일
 99. 2006년 2월 15일
 100. 2006년 3월 15일
 101. 2006년 4월 15일
 102. 2006년 5월 15일
 103. 2006년 6월 15일
 104. 2006년 7월 15일
 105. 2006년 8월 15일
 106. 2006년 9월 15일
 107. 2006년 10월 15일
 108. 2006년 11월 15일
 109. 2006년 12월 15일
 110. 2007년 1월 15일
 111. 2007년 2월 15일
 112. 2007년 3월 15일
 113. 2007년 4월 15일
 114. 2007년 5월 15일
 115. 2007년 6월 15일
 116. 2007년 7월 15일
 117. 2007년 8월 15일
 118. 2007년 9월 15일
 119. 2007년 10월 15일
 120. 2007년 11월 15일
 121. 2007년 12월 15일
 122. 2008년 1월 15일
 123. 2008년 2월 15일
 124. 2008년 3월 15일
 125. 2008년 4월 15일
 126. 2008년 5월 15일
 127. 2008년 6월 15일
 128. 2008년 7월 15일
 129. 2008년 8월 15일
 130. 2008년 9월 15일
 131. 2008년 10월 15일
 132. 2008년 11월 15일
 133. 2008년 12월 15일
 134. 2009년 1월 15일
 135. 2009년 2월 15일
 136. 2009년 3월 15일
 137. 2009년 4월 15일
 138. 2009년 5월 15일
 139. 2009년 6월 15일
 140. 2009년 7월 15일
 141. 2009년 8월 15일
 142. 2009년 9월 15일
 143. 2009년 10월 15일
 144. 2009년 11월 15일
 145. 2009년 12월 15일
 146. 2010년 1월 15일
 147. 2010년 2월 15일
 148. 2010년 3월 15일
 149. 2010년 4월 15일
 150. 2010년 5월 15일
 151. 2010년 6월 15일
 152. 2010년 7월 15일
 153. 2010년 8월 15일
 154. 2010년 9월 15일
 155. 2010년 10월 15일
 156. 2010년 11월 15일
 157. 2010년 12월 15일
 158. 2011년 1월 15일
 159. 2011년 2월 15일
 160. 2011년 3월 15일
 161. 2011년 4월 15일
 162. 2011년 5월 15일
 163. 2011년 6월 15일
 164. 2011년 7월 15일
 165. 2011년 8월 15일
 166. 2011년 9월 15일
 167. 2011년 10월 15일
 168. 2011년 11월 15일
 169. 2011년 12월 15일
 170. 2012년 1월 15일
 171. 2012년 2월 15일
 172. 2012년 3월 15일
 173. 2012년 4월 15일
 174. 2012년 5월 15일
 175. 2012년 6월 15일
 176. 2012년 7월 15일
 177. 2012년 8월 15일
 178. 2012년 9월 15일
 179. 2012년 10월 15일
 180. 2012년 11월 15일
 181. 2012년 12월 15일
 182. 2013년 1월 15일
 183. 2013년 2월 15일
 184. 2013년 3월 15일
 185. 2013년 4월 15일
 186. 2013년 5월 15일
 187. 2013년 6월 15일
 188. 2013년 7월 15일
 189. 2013년 8월 15일

1. 2017년 1월 1일
 2. 2017년 1월 1일
 3. 2017년 1월 1일
 4. 2017년 1월 1일
 5. 2017년 1월 1일
 6. 2017년 1월 1일
 7. 2017년 1월 1일
 8. 2017년 1월 1일

	1950년	1955년	1965년	1970년
영역	영하 30도	북한지역 공산주의는 우리 지역에	북한지역 공산주의	북한지역 공산주의
주요인	영하 30도	북한지역 공산주의는 우리 지역에	북한지역 공산주의	북한지역 공산주의
주요인	영하 30도	북한지역 공산주의는 우리 지역에	북한지역 공산주의	북한지역 공산주의
주요인	영하 30도	북한지역 공산주의는 우리 지역에	북한지역 공산주의	북한지역 공산주의

[illegible]

일시: 2004년 10월 26일~28일

장소: 이과대 과학관 과B118

주최: 이과대 여성주체들의 모임
주관: 연세대 41대 이과대 학생회
후원: 연세대학교 16대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일정광고

25일 (월) 영화를 통해 본 여성의 구체적인 삶

- 7:00 pm 영화 '싱글즈' 상영
- 9:00 pm 영화를 보고 우리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p3을 참고해 주세요.)
- 9:50 pm 마치는 시각

26일 (화) 교수님과 풀어나가는 우리 이야기

- 7:00 pm 송기원 교수님(생화학 전공)과의 간담회
- 8:00 pm 교수님과의 편안한 질의 응답 시간
- 9:00 pm 마치는 시각

27일 (수) 선배님과의 간담회

- 7:00 pm 이세령 선배님(천문대기질, LG CNS 근무) 간담회
- 8:00 pm 선배님과 편안한 질의 응답 시간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 9:00 pm 마치는 시각

28일 (목) 여학우 모임 활성화를 위한 모색 간담회

- 7:00 pm 모인 단위 점검 및 모임의 발제
- 7:30 pm 자유 토론(p11의 안건지 참조)
- 9:00 pm 즐거운 뒤풀이
(즐거게 이야기하며 놀아 봅시다)

25일 '싱글즈' 감상 (영화를 통해본 여성의 주제적인 삶)



싱글즈

< Synopsis >

나는 오늘, "팔려다"

29살 나난. 머리에 동전 크기만한 원형 탈모를 발견한, 불결함이 엄습하는 어
노 날. 몇 년째 믿고 사귀던 애인이 던지는 일방적인 한마디. 오라 그만 해
여. 하늘이 모녀에게도 찾아날 구멍이? ... 없다. 회사에는 딱 하니 붉은 파켈 공
고. "디자인이나 나난 a 레스토랑 매니저" 이런 바로 회사에서도 팔리는 소리.
아, 억울해. 이대로 당할 수 만은 없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입술을 짹 물고는 상무실을 박차고 들어
간다.

나는 오늘, "그 남자의 바지를 벗겼다"

나난의 친구인 워킹맘인 동미. 오늘 남자가 마다 않고 가는 남자가 많지 않은 카오롱과 재방적인 그녀.
하지만 화동한 성격으로 일도 잘하고 이성동생 친구 많은 멋진 Girl이다. 이런 그녀에게 회사 일을
벌머로 노게하게 작업을 걸어오는 팀장이 있었으니. 어느 날 회회실에서 작업을 가는 팀장. 그러자
동미는 "저도 팀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액션 플랜이 있는데..."라며 그의 바지를 벗기고...

나는 오늘, "그녀의 향기를 느꼈다"

동미의 룸메이트이자 나난의 불알친구 정민. 착한 남자가 정민이 여우 같은 어린 여자에게 딱 걸려서
허우적 대고 있다. 결혼은 돈많은 남자와, 연애는 착한 정민이랑 한다는 어린 그녀. 그녀의 말에 동미
와 나난은 한마디. 아야, 정신차려! 넌 그냥 단을 팔리는 정미야! 예쁜 친구들에게 벌칙 화도 내
보지만 답답한 건 바로 정민. 그녀와 힘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그 어느날, 정민은 동미에게서 그녀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나는 오늘, "한눈에 끌렸다"

꽃미남은 아니지만 온근히 색시한 용모, 노게하게 작업하지만 왠지 밍기 않은 괴영성까지 갖고,
알고 보니 잘나가는 증권맨 오현. 그런 그가 젊은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나난에게 한눈
에 끌려버렸다. 카운팅 다 버리고 레스토랑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눈도장을 찍고, 작업 메일을 날려도,
이 돈한 여자, 넘어 올 꼴을 모른다. 그러나 나난, 되게 노게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오
라! 이게 왜 복덩이! 급한기미에 이 남자에게 확 얹어줘버려?"

우리는 오늘도, "작업에 들어간다"

싱글의 특권 카오롱. 언제나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들. 이 네 명의 싱글들의 색소, 일 우정
의 색(色)다른 작업은 어떤 것 일까? 이들은 행복한 29살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영화를 보면서 혹은 보고나서 이것 한번 생각해봅시다.

by 화영

1. 내가 나난 이라면
 - 정민이랑 결혼한다.
 - 수습한다.
 - 영화 속 동미의 선택
 - 기타
 2. 내가 동미라면
 - 정민이랑 결혼한다.
 - 수습한다.
 - 영화 속 동미의 선택
 - 기타
 3. 나난은 30살이 되기 전에 일에서의 성공이나 결혼이라는 인생의 숙제 둘 중
하나는 해결할 줄 알았단다. 내가 원하는 30살의 내 모습은?
 4. 사람들은 왜 연애를 못해 안달인가.
사회에서 커피, 음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
 5. 남녀 동거에 대한 생각은?
 6. 독신을 꿈꾼다면 멋진 싱글로서 필요한 건?
 7. 나난은 외식 사업팀으로 가고, 동미는 몇 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해당하고 연회
비를 하게 된다. 직장에서 여자 사원은 어떤 존재?
 8.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여성 몇%와 같은 쿼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9.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10. 그 외 자유롭게 이야기 해봅시다.
- 「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봤자 지가 문제라는 것이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이다. - 나난 」

26일 교수님과 풀어나가는 우리 이야기

< 송기원 교수님 (생화학전공) 로켓 간담회 >

교수님 소개

송기원 교수님 (현재 생화학 전공 교수님)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화학과 83학번으로 입학하신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생화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과대의 여학생으로서 고민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연구실: 과학원 S 415호

연구실 전화번호 :

다음의 글은 교수님께서 예전에 연세신문에 내셨던 글입니다. 26일 간담회전에 우리 학생들이 한번쯤 읽어 보시면 하께서 이곳에 올립니다.

여학생들의 능력개발

여자 통학생회장과 응원단장이 나오는 연세대학에서 아직도 여학생의 능력개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여학생들의 지도력 배양'에 대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면 남학생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다. 3년 전쯤 과학재단에서 여성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도 남학생들로부터 "이게는 여자세상이다"라는 비평거리를 들어야 했다.

그렇다면 과연 연세대학은 여학생들을 비견을 가진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잘 길러내고 있는가. 또한 사회에 진출한 이공계 출신 여자들은 '여자세상'에서 제대로 그들의 직업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 오강소령'에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No'이며 그 이유는 항상 개인적 능력 문제로 돌려지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학생들과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비견'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지그룹 (supporting group)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나아졌으리라 기대하지만 필자가 대학에 들어와 처음 선배들에게 들은 충고는 "여자는 결국 시집가면 아무 쓸모없으니 괜히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A와는 물이 같다" 등의 이야기를 4년 내내 들으며 지냈다. 미래에 대한 비견을 가지고 자기 계

발에 매달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Expand the Horizon'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학생들이 자기개발에 비협조적인 분위기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견을 갖고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기가 훨씬 쉬울 것인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이공계 여고생들과 여자 대학 및 원생들을 네트워킹 하여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팀을 이루어 학문의 다음세대인 초, 중, 고 여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공계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연세대학에 다시 돌아와 지낸 지난 6년, 내 학창 시절에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여학생들이 유사한 학내 분위기와 역할 모델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능력개발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마다 체계적인 여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2001년 우리나라에도 'Expand the Horizon'과 유사한 WISE (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라는 프로그램이 결성되었다. WISE (www.wise.or.kr)는 전문 여성과학자들과 여학생들간의 멘토링을 통하여 여학생들이 비견을 가지고 과학자로서 사회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고 여성 전문인력들에게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상호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세대학교 이공계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자기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또한 올해 우리학교 여성인력 개발원도 개원하여 여학생들을 독립적인 사회인 및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 및 여성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자신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학생과 여고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리를 넓히고 서기를 기대해 본다.

< 도움 주시려 하시는 다른 교수님 >



- 전혜영 교수님(대기화학전공)
- 연구실: 과학관 543호, 연구실 전화번호: 02)2123-2692
- 현재 "여성과학도와 비견 찾기(화9, 과529A)"라는 새내기 세미나를 하고 계십니다. 수강생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수업에 함께해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언제든지 찾아보세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직접 하세요.

< 이과대 여동문회에서 알립니다 >

- 11월 8일(예정) 과111에서 이과대 여동문회 행사를 합니다.
- 동문만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참여해서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중입니다.
- 개학문의: 오미혜 학사지도 교수님 (연구실: 백양관313-1, T.02)2123-3210 E-mail: momo@yonsei.ac.kr)

27일 선배와의 간담회

(이세령 선배님(케온대기물, LG CNS 근무) 초청 간담회)

선배님 소개(이력)



[이력]

1994.02 :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케온대기학과 입학

1998.01 : 연세대학교 입학

- 계량분석 및 해양일기예보 담당

1998.02 :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케온대기학과 졸업

2000.05 : LG CNS 입사

- 2001.05 : Java Programming 강의

- 2002.04 : SAP-HR ERP 구축 프로젝트 참여

- 2004.10 현재 : HR 시스템 외 사내시스템 운영

안녕하세요.

케온대기학과 94학번 이세령입니다.

대학교 학생시절 내내, '생애 이만큼 행복한 시절은 다시 없으리라...'는 가슴에 품고 지내셨는지,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는 당당한 여인이 된다는 실례임보다 더이상 나를 감싸주던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아쉬움에 입사 후에도 거의 1년 이상을 '졸근한다'와 '등고한다'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안락했던 시간도 벌써 6년 만에 되었고, 한번 회사를 옮기고 결혼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었던 신 분은 기약 제편으로 출세하고 이제 한 회사의 대표로서, 한 가정의 주안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입사 가정 사이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생기는 이 때, 모교 여학생들을 위한 워크샵에 참석해서, 비록 짧지만 선배로서 또 여성으로서 겪은 사회경험담을 들려달라는 제와는 또 개인적으로 학생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장으로 옮긴 기회가 아닐 수 없고 평범한 직장인이자 저를 그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마음을 드립니다.

여성의 커리어개발

사회와 통념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 비단 어느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이번 워크샵처럼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이 형성되는 것은 여성 스스로에게 매우 힘이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정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남의 학업과도 함께 현상과 서로 얽히는 바를 논외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대한 문화로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첫번째 단계는 무엇보다 먼저 사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향후'와 '이제'에 긍정적인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우리 여성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 만으로도 이번 워크샵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앞서간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고, 각자 나름대로의 모습을 성찰해서 여러분 모두가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잠이 들어가는 마당.

<시 한번 읽어 보시다>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문지하-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고도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자국을 끓이고 있잖아
사골을 넣고 세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서
더운 김을 쏘이며 감자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자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잖아
식거지를 뜬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잖아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독고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잖아
당 후보를 뽑는 체육관에서 한복을 입고 리본을 달아주고 있잖아
꽃다발 증정을 하고 있잖아
다행히 취직을 해 큰 사무실 한켠에 의자를 두고 친절하게 진화를 받고
가끔 차를 나르잖아
의사 복인 교수 복인 간호원도 되었을 거야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든지도 몰라
그리고 남편이 귀찮아지기 전 3집지킴 집으로 돌아갔지도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 높은 발단의 숨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방에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려져서
아직도 새것으로 출퇴근할까
그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부엌과 인방에 갇혀 있잖아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28일 여학우 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행사 진행 순서 및 발제문

0. 참가한 사람들 자기소개 (누구, 누구 왔나?)

1. 지금까지의 이과대 여성 커리어 워크샵 평가

- 자신이 참가한 행사(3개)의 행사가 중요)는 무엇인지 이야기 하고 그 행사를 참가해서 얻은 것, 느낀 것 등을 이야기 해주세요.

2.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단체들의 모임의 발제

- 두 발제문을 참고하세요.

3. 논의

-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 현재 여학우 모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나) 여학우 모임이 있는 곳은 왜 있고, 없는 곳은 왜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학우 모임이 있는 곳은 어떻게 모임을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어떤 점들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들어봅시다.

다) 대부분의 과/반에서 새내기 때는 여학우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갈 수록 그 참여가 줄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럼 그런 현상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 연세대학교에서 살아가는 여학우들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여성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여학우들이 느끼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4. 기타 논의 (자유토론)

5. 끝나는 되풀이.

< 여학우 모임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봅시다.>

by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단체들의 모임

연세대학교의 한해 입학생은 약 오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여성의 수는 대략 2천명 정도로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대마다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세대 내외 단과대들도 남녀 성비가 1:1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과/반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과대의 경우 재학생의 성비가 1:1에 가깝지만, 학생회 집행부나 과/반 학생회의 임원을 보면 거의 다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임원의 남성 독식의 문제는 비단 이과대의 문제만 아닙니다. 문과대의 경우 성비가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임원의 성비는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은 학생회 활동에 다들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일까요? 저희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단체들의 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이 워크샵과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만들어 보자는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남녀비율과 교수의 남녀비율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는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학업외의 부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요구들에 맞추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과/반에 여자 선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과/반에서 적극적으로 일고 싶어도 의지하고 따라 할 선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과/반의 여자 선배님들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여성이 많은 사회가 요구하는 과도한 역할 수행 때문일까요?

저희는 이러한 현상의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 연세대학교의 이상한 문화가 여성을 객체화 시키는 학습으로 여성이 객체화 되어 가고 있다. 둘, 여성 간의 네트워크 형성-남성중심의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교환이나 서로 간의 지원 활동이 남성에게 비해 약하여, 여성이 객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어도 함께 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여러분과 한국 사회 전체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곳 연세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 힘들어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성 혹은 남성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원인과 해결을 고민해보면 됩니다.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단체들의 모임은 남성과 여성 모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여성의 문제는 결국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이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남성이 듣고 남성들의 이야기를 여성이 들으며 함께 고민하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굳이 어떤 한 성만의 자리가 아니고 함께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밝히며 발제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광고 I

(여성리더십 특강)

<이공계 전공 여성의 기회와 도전>

여학생처에서는 단백질네트워크연구센터 후원으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과학기술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21세기에 이공계 출신의 여성들이 다가온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도선 박사를 모시고 <이공계 전공 여성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마련합니다.

일 시 : 2004년 11월 8일(월) 오후 5시 30분

장 소 : 과학관 111호

강 사 : 나도선 박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울산의대 교수)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이공계 전공자가 연구실과 공장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의 각 부문에 적극 진출하는 사회이며 지금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3F(female, feeling, fiction)를 특징으로 하는 여성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정도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며, 특히 이공계 출신의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특히 여성과학자의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내 놓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의 여성 지도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가,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들이 과학기술 이외의 사회 각 부문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여성인 나도선 박사의 특강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계의 위기'라는 말과 함께 이공계 전공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요즘,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나도선 박사 소개

강연을 맡은 나도선 박사는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약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생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귀국 이후 KIST 유전공학센터에서 생화학연구실장을 거쳐 1990년부터 울산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37년 역사상 여성으로는 최초로 회장에 당선돼 2005년부터 일을 맡을 예정이다.

문의사항 : 여학생처 전화 02) 2123-2135, 6 이메일 women@yonsei.ac.kr

후 원 : 단백질네트워크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광고 II

●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주체들의 모임 소개

1. 2004년 이과대 여성주체의 제안으로 204년 5월 이과대 각반에 여성 & 반성폭력주체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어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2. 매주 금요일 3:00pm에 이과대 학생회실에 모여서 회의와 세미나를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활동 중인 친구들은 영현, 화영, 민영, 경민, 우주 등이 있습니다.
4. 지금까지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주체들의 모임에서 한 활동은...

- '아카라카를 온 노리에' 공연한 중 있었던 성행위 묘사 사건에 대한 항의와 사과문 게시 요구하여 사과문을 9월1일 게시되었습니다.
- 이과대 화장실 남녀 불평등한 실태 묘사 및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 결과로 이과대 사무실에 서명을 요구하고, 이후 화장실 리모델링에 남녀 화장실 개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이과대 여성 커리어 개발 워크숍' 개최
- 여학생 표정일 관련 및 꾸미기 (1학기 맨 열심히 했는데...)

5.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주체들의 모임을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요건>

다음의 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지원해주세요.

- 반드시 이과대 학생이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소로 여성이나 반성폭력에 관련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
- 여학생 표정일을 자신의 소로 마음껏 꾸미고 싶은 사람
- 반성폭력이 뭔지 여성주체 모임이 왜하는 곳인지 궁금한 사람
- 이 워크숍에서 필 받은 사람
-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
- 그 외 이들을 위고 있는 당신.....

6.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운영현 T. 011-9334-3580, E-mail: topofun@yonsei.ac.kr

혹은 매주 금요일 3:00pm에 이과대 학생회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P.S) 이 뒤에는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주체들의 모임에서 준비한 여러분께 드리는 읽어봐요만 하는 글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과대 화장실에 대한 짧은 생각

by 안지은

□ 화장실 관련 법규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 화장실 변기 비율 개선 기준(안) 요약본

☆ 의의

• 성별 불균형 해소

- 남녀 동등 비율로 적용 (1:1)

- 남학생용 대변기 : 소변기 : 여학생용 변기 = 1 : 2 : 3

• 학급당 변기수 및 변기 사용 인원수 선정

- 0.7 : 1.4 : 2.1 (여 8.3명당, 남 8.3명당 각각 1개씩 변기 설치)

☆ 화장실 배치시 고려사항

• 대규모 집중배치 지양, 소규모 분산배치

• 각종 배치 지양, 각 층별 균등 배치

• 남녀 공학의 경우, 향후 성비가 달라질 경우를 대비, 구조변경 가능토록 설계

이과대 화장실 실태

1. 재학생 조사 (화장실 이용자 조사)

	학부생	대학원생(석사)**	교수/교직원*	계
남	1038	220	104/15	1377
여	693	163	7/20	883
계	1731	383	111/35	2260

*교직원은 사무실에 등록된 35명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각 학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생(석사과정만 고려) 남녀비율을 대학원본부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화학과 대학원생의 남녀비율(1.35:1)과 동일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남녀비율

재학생 남녀비율=1.5:1, 대학원생 남녀비율=1.35:1,

교수/교직원 남녀비율=4.4:1

이과대 전체 남녀비율= 1.6:1

2. 화장실 실태

장소	화장실의 수 (개)		여(대변기)	남(대변기)	남(소변기)	비고
	남	여				
과학관 지하1층	2	2	4+4 (8)	4+3 (7)	7+3 (10)	
과학관 1층	2	2	3+3 (6)	4+3 (8)	5+5 (10)	
과학관 2층	2	1	4	4+4 (8)	5	
과학관 3층	2	1	4	4+4 (8)	5+6 (11)	
과학관 4층	2	1	4	4+4 (8)	5+6 (11)	
과학관 5층	2	1	4	4+4 (8)	5+6 (11)	
과학관 6층*	1	0	0	4	5	
과학원 지하2층	2	2	1+2 (3)	2+1 (3)	2+4 (6)	
과학원 지하1층	4	4	1+1+2+2 (6)	2+2+1+1 (6)	2+2+4+4 (12)	
과학원 1층	3	3	3+1+1 (5)	2+1+1 (4)	2+4+4 (10)	
과학원 2층	4	3	1+1+1 (3)	2+2+1+1 (6)	4+4+2+2 (12)	
과학원 3층	3	4	3+1+2+2 (8)	2+1+1(4)	4+4+2 (10)	
과학원 4층	3	4	2+1+2+2 (7)	2+1+1 (4)	4+4+2 (10)	
계	32	28	62	78	123	

*과학관 6층의 경우, 여자화장실이 없음.

남녀 화장실의 대변기 칸의 넓이 차이 조사

(과학관 2,3층의 예, 타일 수로 계산)

- 남자 화장실 대변기 한 칸의 넓이 = $28 \times 24 = 672$ 개
- 여자 화장실 대변기 한 칸의 넓이 = $22 \times 21 = 462$ 개
- 남녀 화장실 넓이 차 = $672 - 462 = 210$ (넓이 차: 1890cm^2)
($210 \times 9 = 1890\text{cm}^2$ 타일 한 개의 넓이 = 9cm^2)
- 화장실 한 개당 대변기 수: 남($74/31=2.4$ 개) 여($64/28=2.3$ 개)
- 화장실의 개수 비 => 남:여 = 1.1:1
- 남자대변기: 남자소변기: 여자대변기=>1:1.6:0.8
- 앞 페이지에 있는 법규, 개선안과 비교해보세요.

생리대에 대한 짧은 생각

by 준영

1.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생리대는 전세계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일생의 8분의 1이라는 기간동안 사용하게 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생리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 생리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리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비단 생리대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자행되어온 여성의 몸에 대한 편파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생리대에 대한 탐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다. 첫째 생리대에 들어있는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둘째 생리대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불안정성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용자로서 여성에게 알려줄 충격을 주고 나아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실질적 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리대가 가지고 있는 순결이데올로기

인류역사의 흐름 속에서 흔히 말하는 여성의 세계화적 패배(?) 이후로 남성이 모든 사회 권력의 주체가 되고 모든 사회 담론의 발화자가 되면서 여성은 대상화되고 도구화되며 권력의 역역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남성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다른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는 철저하게 "악"으로 규정 내려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몸과 마음의 이분법적 세계의 형성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이해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형성에 여성은 "악"의 성질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고 특히 '생리'라고 하는 여성만의 행동은 악마적 성질의 발현으로 여겨졌고, 생리 현은 악마적 물질로서 (간혹 생리혈을 숭상화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처녀의 피'라는 이데올로기였다.) 가장 끔찍한 물질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 속에서 여성은 생리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생리 혈의 깨끗은 어떻게 해서는 지워야 할 부끄러운 흔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여성 스스로의 몸에 대한 담론을 남성이 이야기하고 그 담론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을 남성이 독점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남성권력이 억압하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는 생리, 그리고 생리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분법적인 폭력적 사고는 지금의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광고물의 메시지로 대체되어있고 여전히 생리를 감추어야 할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러한 시각을 타파하기 위해 월경 페스티벌이 전개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은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월경페스티벌과 끊임없는 페미니스트들의 저항 속에 월경에 대한 표면적 공론화가 이루어진 지금이지만 월경페스티벌의 소개책자에 바쳐진 생리대회사의 순결 이데올로기적 광고문구가 찍혀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티나지않게', '와이트', '깨끗하게'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문구들은 여전히 생리를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알면 곤란 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생리대에 생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 희게 더 희게 생리대를 표백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듯 흰색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생리대는 흰색이어야만 하는가? 설사 정말 생리혈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짙은 색이 더 낫을 것이다. 이처럼 흰색이 독점하고 있는 생리대의 색상은 흰색이 가지고 있는 '순결'의 이미지를 자본가들이 심리적 광고 도구로써 채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오래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이러한 의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리대의 하얀 빛깔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번쯤 '분노'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3. 생리대가 여성에게 가하는 생화학적 위험.. 안전한가?

편의를 위해 늘 상 쓰고 있는 생리대, 과연 안전한가? 생리대의 안정성에 대해 여러 대책을 통해 공론화 된 것 같지만 실상 사용자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대의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담배회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리대회사는 자본주의적 합법성을 들먹이며 생리대의 성분 공개를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생리대에 의한 질병 유발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의 사례는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폴리에스테르"라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류에 들어가는 물질의 당연한 함유만으로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물질이 들어간 것이 명백한 생리대에 있어서 안정성을 검증하려면 성분의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어떠한 회사도 어떠한 경우기관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생리대 자체가 안전하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물질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이고 대량생산체계에 입각한 부분별한 불안정 물질의 함유가 필연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생리대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여성들은 성기에 관련된 새로운 질병에 감염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질병들과 생리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질병은 '그들의 쓸데없는 사회진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어이없는 이유로 억지스럽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 되어버렸다.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부수히 많은 연구가 나오는 동안 여성의 몸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이 "남성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한다. 돈이 안 되고 남성권력에 이바지하지 않는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생리대는 더 희고 더 강한 흡수력을 주제로 나날히 발전(?)하고 있다. 1980년대 '삼입형 생리대'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제품 '탐폰'으로 인해서 생겨난 '회사는 이를 부정하지만' TSS(독성 쇼크 증후군)인한 여성 사망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저항으로 1990년대부터 흡수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안정성을 보장해 가는 방향으로 신제품이 출시되는 모습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마치 '누군가가 희생당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같이 보인다.

4. 이제 한번 분노해보자

월경페스티벌 전시공간의 가장 안쪽에 가장 크고 화려했던 생리대, 피임약 회사의 관측부스와 홍보책자를 보면서 분노하고 싶어진다. 이제 생리대회사의 거대 자본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우리에게 순결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암묵적 독점으로 안전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공룡(일례로 다국적 기업의 산물인 '탐폰'은 이미 삼입형 생리대를 전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평가해 주세요.

1. 참가하신 그동안의 행사들 중에서 어느 행사가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

[25일 영화감상, 26일 교수님 간담회, 27일 선배님 간담회, 28일 학생간담회]

2. 1번에서 선택하신 행사가 다른 행사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이 워크샵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으로 주시겠습니까? (점/100점)

4. 3번에서 점수를 그렇게 주신 이유를 워크샵에서 좋았던 것과 안 좋았던 것, 개선했으면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좋았던 점: ()

개선해야 할 점: ()

5. 다음에 이런 워크샵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아니오)

6. 귀하와 소속단체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적극적 참여	참여	보통	별로 참여 안함	참여안함
--------	----	----	----------	------

7. 6번에 대답하신 사항에 대해 나름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

8. 이번 워크샵에서 주로 이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과대 여학우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아니오)

9. 학번, 전공, 소속단체(과/반/동아리) 성별?

(, 전공 , 소속

성별(남/여))

10. 이과대 여성 & 반성폭력 단체들의 모임에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